

- 성명, 성과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 규칙

- 1)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.

김지수 김소희 이안토니오 신사무엘

- 2) 성이나 이름 뒤에 붙어 호칭 또는 직업을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.

김지수 씨 김소희 선생님 소안나 양 남일 교장

최 사장 홍길동 박사 박 과장

-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봅시다.

- 1) 제 이름은 (박칼린 , 박 칼린)입니다.

- 2) (김소희선생님 , 김소희 선생님)께서 오늘 결근 하셨다.

- 3) (송 박사님 , 송박사님)께 연락 드리세요.

- 4) (최관우씨 , 최관우 씨) 계세요?

- 5) (문재인대통령 , 문재인 대통령)은 지금 미국 방문 중이다.

- 6) (남 일 교장 선생님, 남일 교장 선생님)께서 개학식에서 연설을 하고 계신다.

한국반	문형/ 문법	수업자료
-----	--------	------

- ~아 버리다: 어떤 동작이 끝난 상태.

말하는 사람의 아쉬움이나 훌가분한 느낌 표현

예)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. 제가 다 먹어 버렸거든요. (아쉬움)

오랫동안 미뤄 왔던 일을 오늘 다 끝내 버렸어요. (훌가분함)

- 다음 ()안의 말을 '~아 버리다'로 바꿔서 대화를 완성 하세요.

<보기> 가: 케이크가 어디 갔지요? (먹다)

나: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 버렸어요.

1. 가: 친구와 화해했니? (화를 내다)

나: 아니요, _____ . 좀 참을 걸 그랬어요.

2. 가: 숙제를 벌써 다했어? (끝내다)

나: 네 _____ . TV를 보고 싶어서요.

3. 가: 그 영화 어땠어요? (올다)

나: _____ .

4. 가: 시험에 떨어지고 속상했지? (올다)

나: 네, _____ .

5. 가: 김치 찌게 맛있게 드셨어요? (태우다)

나:

- '~에 지나지 않다'를 넣어 <보기>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.

<보기> 소희는 아주 똑똑해 보인다. 그런데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.

→ 소희는 똑똑해 보이지만 평범한 학생에 지나지 않다.

1. 장애는 힘들게 보입니다. 그런데 그냥 불편함 일 뿐입니다.

→ -----

2. 이 옷은 비싸 보입니다. 그런데 오천 원짜리입니다.

→ -----

3.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어린이 1명을 살리기 위해 만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.

→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어린이 1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돈은

-----.

4. 숙제는 한 장 정도였지만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

→ -----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

5. 이번 여행은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→ -----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- '그리 ~지 않다'를 넣어 <보기>와 같이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.

<보기> 가: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들어요.

나: 보기보다 그리 무겁지 않아요. 혼자 해도 괜찮아요.

1. 가: 희아의 콘서트는 어땠어요? (힘들다)

나: 오늘 본 희아는 _____ 것처럼 보였어요.

2. 가: 옷을 더 입어요. 감기에 걸리겠어요. (춥다)

나: 괜찮아요.

3. 가: 우리 반에서 내가 키가 제일 작지?(작다)

나: 아니야,

4. 가: 점심 시간이 지나서 배고프겠네. 빨리 밥 먹자. (배고프다)

나: 아니에요, _____.

5. 가: 시험 공부 하느라 밤까지 세고 많이 힘들겠다. (힘들다)

나: 아니에요, _____.

한국반		한자		수업 자료	
田	畚	果	樹	實	
밭 (전)	논 (답)	과일 (과)	나무 (수)	열매 (실)	
敍	事	敍	情	的	
차례, 설명하다 (서)	일 (사)	차례, 설명하다 (서)	뜻 (정)	형용사 (적)	

1. 가세가 기울기 시작 하더니 그 많던 田畚 다 팔게 생겼어요.
2. 소설 '소나기'는 한국을 대표하는 敍情 소설이다.
3. 果樹원 果實이 탐스럽다.
4. 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그는 큰 결實을 맺었다.
5. 부지런함과 성實함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다.
6. 그 사람은 항상 자시 實속만 챙긴다.
7. 소설 '토지'는 한국을 대표하는 敍事 소설이다.

*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제목:

김소월

나 보기가 역겨워
가실 때에는
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.

영변에
약산
(),
아름 따다가실 길에 뿌리오리다.

가시는 걸음 걸음
놓인 그 꽃을
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.

나 보기가 역겨워
가실 때에는
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
다.



- 분위기(정서): 전통적인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. 애상적 호소 속에 자신의 충격과 슬픔, 그리고 이별이 가져다 줄 아픈 상처를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떠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

- 구성:

- 1 연- 체념(resignation)
- 2 연- 축복(blessing)
- 3 연- 원망을 초월한 사랑
(the love beyond the resentment)
- 4 연- 인내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
(overcome the sorrow by having patience or endure)

*고조선의 <공무도하가>로부터 <서경별곡><가시리>을 비롯한 고려가요, 조선시대 황진이의 시조, 민요 <아리랑>, 현대시 김소월의 <진달래꽃> 등 많은 문학작품 속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정서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.

- 국문학사에서 이별 시의 맥을 잇는 작품들을 정리하세요.

(위 * 를 참고 하세요.)

고조선 - → 고려 - →

조선 - 시조, → 현대시 -

- 이형기 시인의 '낙화'를 선생님과 함께 예쁜 손 글씨로 써 보세요.

낙화(落花)

이형기